

TRANS- HUMANITIES

Title :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세계문학 번역사

**Ethics and Politics of Translation: Translation History
of World Literature in Korea as Cultural Translation**

Author(s) : 정은귀(CHUNG Eun-Gwi)

Source : *Trans-Humanities*, Vol. 7 No. 2 (2014), pp. 39-67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c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세계문학 번역사

정은귀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며

‘번역’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기술이다. 최근 들어 번역 이론이 문화번역의 장에서 자주 거론되면서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서 번역이 담지하는 윤리와 정치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빈번해졌다. “어떤 것도 번역할 수 없다”(Nothing is translatable)와 “모든 것이 번역 가능하다”(Everything is translatable)가 번역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로 공존하는 현실에서(Apter xi) 번역은 ‘문화 변용’의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다.¹ 과거 문학번역이 등가 개념을 내세워 충실성(출발어)과 수용성(도착어)의 두 기준이 절대적이었다면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번역은 다른 층위의 언어와 문화가 소통이라는 과제를 두고 끊임없는 권력 싸움을 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영어 문화권에서 번역가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던 ‘번역가-하인’(servant-translator)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번역가는 충실성에 입각하

1. ‘문화변용’(cultural acculturation)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직접적,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그 한쪽 또는 양쪽이 원래의 문화 유형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주로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근대의 세계 문학 번역사를 논할 때 문화변용의 문제가 문화번역과 함께 간접적으로나마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개념을 쓰기로 한다

여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두 언어의 옷을 갈아입는 자라는 정의에서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해묵은(하지만 언제 들어도 날렵한) 말은 번역의 불가능성에 대한 사유, 번역의 한계, 그 너머의 자유로움, 재창조의 가능성까지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번역이 하나의 언어를 배반하고 떠남으로써만 가능한 행위라는 것을 번역가에게 상기시킨다. 그 점에서 번역가는 자기 언어의 모반자라는 자의식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해서 원작을 우위에 둔 열등한 복제라는 번역에 갖든 낡은 의식은, 번역 행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도발적인 창조의 가능성 앞에서도 여전히 어른거린다.

반역과 창조 사이를 진자운동처럼 오가는 번역은 언어적 환대가 발생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환대가 발생하는 장이기도 하다. 리코르(Paul Ricoeur)에 따르면 번역가는 “문화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로서 “타문화의 정신적 우주”까지 건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5). 파생적이면서 보조적인, 나아가 반역의 운명을 진 번역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의 일이고 보면 비교적 짧은 번역학의 역사에서 번역의 중심이 언어에서 문화로 이동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번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등가’ 개념과 번역의 역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문화 편향성’이라는 도저히 화해하기 힘든 두 문제적인 층들의 맹아가 처음부터 상존하는 ‘장’(field)으로서의 번역은 어쩌면 처음부터 문화번역의 다른 이름이었던 듯도 싶다. 문제는 언어에 대한 사유의 차이일는지 모른다. 복수의 언어/혀(tongues)로 말하는 시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도 비슷한 맥락이겠다. 1965년 캣포드(J. C. Catford)가 정의한 “출발어의 의미를 도착어의 의미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번역 개념에 대한 비판은 그러므로 일찌감치 있어왔다(Bassnett, *Translation* 15). 문화적 차이를 중재하는 실천으로서의 문화번역 또한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문화의 ‘혼종성’(hybridity)을 발현시키는 담화 방식을 지칭하는 폭넓은 의미로 쓰인다.

아이러니는 문화연구의 방법론에서 문화번역을 둘러싼 논의는 무성하지만 번역이라는 실제적 기술의 차원에서 번역과 문화번역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어가 지배/피지배 중심/주변 등 실제 정치적·문화적 권력의 차원에서 행사하는 힘이 다른 상황에서 오는 번역의 문화적 편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도 실제 번역(특히 한영, 영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자신을 변형시켜 이웃이 되는 실천적 행위”와 “딴음과 차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타 문화 속의 억압된 낯선 이국성을 대면함으로써 자신을 변용시키는 적극적 행위”(이명호 246-47)로 정의하든, “번역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공간적 맥락”과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총체적 과정”(김현미 131)으로 정의하든 문화번역은 지금 시대 문화연구의 가장 매력적인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포스트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 등 이론과 결부하여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캐치 프레이즈가 된 ‘문화번역’이 우리 시대에 다양하게 호출된 ‘문화’와 맺는 관계는 막상 그리 쉽지 않으며 번역의 ‘실제’와 연결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 대학의 현실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문화는 문학의 위기와 맞물려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로 포장되어 있고, 번역 또한 이즈음 대학의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 ‘문화’와 ‘번역’ 모두 심도 있는 이론적 탐구가 부재한 채, 문학 텍스트 읽기나 영어 글쓰기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학 영문과의 커리큘럼에 하나의 유통구조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여전히 이론과 실제 번역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번역은 이즈음 문화의 이름을 붙여 다시 날개를 달았다.²

2.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예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foreignization)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편한 예로 ‘꽃감’과 ‘막대사탕’(lollipop)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한국의 전래동화를 외국어로 옮길 때, ‘꽃감’을 꽃감으로 옮겨야 하나, 막대사탕으로 옮겨야 하나? 이 질문은 몇 년 전 모 학회에서 열린 통번역 학회에 필자가 참가했을 때, 한 참가자가 프랑스에 한국의 동화가 성공적으로 번역된 예로 언급한 잘 된 번역의 예로 꽃감을 막대사탕으로 옮긴 예를 들었을 때 짝튼 것이다. 훌륭하게 자국화에 진입하여

‘문화’와 ‘번역’의 결합이 유행이 된 시절에 문학 연구자로서 이 현상에 갖든 문제의식은 유효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언어적 환대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장으로서 ‘문화번역’은 두 다른 언어의 수평이동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음’을 살피게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본격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도전적인 과제이다. 번역이 두 언어 간의 투명한 넘나들기라는 불가능한 신화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기원(원본)과 파생물(번역본)이라는 서열 구조에 의거해서 영원한 서자를 낳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화번역은 번역에 처음부터 내포된 문제를 실제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리하여 문학을 포함하여 번역에 개입되는 모든 이해와 오해, 언어, 정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언어에 본래 갖든 창조적 사유의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서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묻게 한다.

특히 중심과 주변, 보편과 특수, 기원과 파생, 문명과 미개라는 이분법적 위계질서 안에서의 어떤 힘의 이동, 전달, 혹은 파생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화번역은 지금 시대 번역 현실이 처해 있는 난처한 질문들에 대면하는 개념이 되겠다. 이 글은 문화번역에 갖든 정치성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변용의 관점을 접목하여 우리나라 근대의 세계문학사 번역의 과정을 영미문학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려고 한다. 한국의 근대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교양교육의 토대가 된 세계문학전집 번역을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다루고, 그 과정에서 번역을 통한 문화의 이동, 문화 변용과 번역의 윤리, 정치성에 대한 질문을 간추려

프랑스 시장에서 호평 받은 예를 들면서 이 경우 ‘꽃감’을 프랑스 아이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팍대사탕’이라는 대체물로 숨씨 있게 옮겼다고 하는데, 이는 이즈음 번역이론이 기존의 번역에서 자행된 문화 권력의 힘을 비판하면서 그나마 평형된 문화적 층위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이국화’와 정확히 배치되는 예가 될 것이다.

www.kci.go.kr

보고자 한다.

사실 한국에서의 세계문학선(전)집 번역 작업은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 논의된 소재이다. 최근에는 세계문학 선/전집 출판이 세계문학을 재편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되었는데, 유럽 중심주의에 갇힌 세계문학선집 정전화에 대한 비판이나 대륙별, 인종별, 언어권별 차별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김재용 150; 우석균 156-57). 번역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번역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었다면³ 최근 들어 제기된 정전에 대한 비판은 서구문학 위주로 편중된 작품 선정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계문학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과 닿아있다. 최근 국내의 세계문학전집 출판이 훨씬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포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비판적 지적을 출판계에서 수용한 덕분일 것이다. 출판계의 윤택없는 불황에도 많은 출판사에서 여전히 앞 다투어 주력으로 몰두하는 사업이 세계문학전집 번역 사업이기에 6, 70년대의 호황기가 이즈음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탕, 삼탕, 십탕, 심지어 삼십탕까지 반복되어 온 번역본의 남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다양화를 꾀하는 출판사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구문학 그것도 영미권 작품이 가장 많은 현실이다. 이 글은 한국에서 세계문학선집 번역의 역사를 간단히 짚어 보면서 번역에 개입되는 윤리와 정치성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문제임을 살피고자 한다. 변화하는 번역출판 시장에서 문학연구자가 ‘문화 번역’의 정치성을 사유하면서 감당해야 할 몫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나라 번역 문학사를 영미권 중심으로 훑어본 다음 번역의 정치성과 윤리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좀 더 예각화해 나가겠다.

3. 대표적인 예로, 영미문학연구회의 번역평가 사업단 주도로 출판된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2005)가 있다. 집단 연구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수십 년간 우리 번역 출판 시장에서 번역의 질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 나름의 차별하면서도 의욕적인 응답이었던 셈이다.

II. 세계문학전(선)집 번역의 정치성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 형성과 번역에 관한 연구서는 많지 않다. 서구문화와 맞대면한 근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70년대까지 번역사를 집대성한 김병철의 저서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1972)와 상·하 2권으로 된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1998)가 번역 문학사를 정리한 자료로서는 단연 독보적이다.⁴ 김병철에 따르면 우리의 근대 문화 형성기에 번역(문학사)는 다음 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895년부터 1917년에 이르는 준비단계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서구문화와 직접 충돌하게 된 때이다.⁵ 이 시기에는 문학작품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띠고 애국심과 독립에의 열망을 고취시키기 위한 번역물이 많았다. 역사물 번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그 이유이다. 이 시기 최초의 문학 번역은 1895년 존 번얀(John Bunyan)의 『턴로력당』이 있다. 번역 작품을 실었던 초기 간행물로서 최남선이 발행한 잡지 『소년』(1908.11-1911.5)에는 테니스(Alfred Tennyson), 바이런(Baron Byron), 톨스토이(Leo Tolstoy) 같은 작품들이 일본 번역판을 통해 간접 번역되었다. 번역에 있어서 중개 언어가 중국어에서 일본어로 교체되었다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어를 통한 간접 번역이 많았기 때

4. 한 해에 동시에 출판된 김옥동의 최근 저서 『근대의 세 번역가: 서재필, 최남선, 김억』, 『번역과 한국의 근대』는 김병철의 찬찬한 자료 조사를 이어받아 번역을 통한 한국 근대 문화의 형성을 추적하고 있다.

5. 김병철은 한국문학사의 개화기 신문학 출현에 있어 창작 소설이 나오기 전에 벌써 번역문학이 선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169). 더욱이 개화기소설이 구축한 문학의 사명, 즉 국권수호를 위해 문학이 봉사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창작성 앞서 번역문학이 기여한 바가 크며 그 때문에 문학 자체의 예술성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효용가치로 문학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문에 일본 번역판의 문체를 모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남선은 『소년』 폐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춘』(1914.10-1918.9)이라는 잡지를 통해 초 오서(Geoffrey Chaucer),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밀턴(John Milton), 톨스토이, 모파상(Guy de Maupassant), 휴고(Victor Marie Hugo),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등을 번역 게재하였다.⁶ 청소년들의 진취적인 생각을 북돋우기 위해 서양의 영웅들과 종교계 인물들의 생애를 극구 칭송하기도 하였는데 당시의 번역물 대부분이 요약물과 번안물이었지만 이후 번역 문화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번역규범의 형성기를 들 수 있는데 김병철은 1918년에서 1925년의 시간을 잡고 있다. 앞서 준비단계에서 본격적인 문학작품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번역물에 대한 관심이 짙었다면, 『태서문예신보』(1818.9-1919.2) 등의 잡지에서 교육보다는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번역을 통해서 서양의 명작들을 소개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당시엔 소설이나 산문보다는 시 번역이 더 많았고 영국문학과 러시아문학, 인도문학 번역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⁷ 특히 시인이자 번역가인 김억의 업적이 지대한데, 김억은 『금성』(1920년대 초)에 번역소설 1편과 19세기 말 불란서 시, 그리고 타고르(Rabindranath Tagore)의 시를 포함하여 35편의 시를 번역 출판하였다. 이 잡지는 문학을 공부한 학자들에 의해 출간, 편집된 최초의 잡지로서 원작으로부터의 직접번역이 출판원칙이었다는 점에서 30년대 전문번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26년에서 1935년까지의 기간은 김병철이 ‘전문화된 번역기’로 꼽고

6. 작가 이름의 한글 표기는 일단 김병철이 쓴 그대로를 따랐다.

7. 1920년대에 번역된 국가별 문학작품을 보면, 영국문학이 151편, 미국문학이 65편, 독일문학이 68편, 프랑스문학이 100편, 러시아문학이 127편, 인도문학이 126편, 이탈리아 및 기타 문학이 34편이다(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414). 이 시기에 서구문학을 이입시켜 자국 문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짙게 된다.

있는 시기로 번역문학 초창기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해외문학』(1927)지의 경우 번역을 통하여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목표가 선명하게 명시된다. 편자는 외국문학 번역의 이유를 첫째, 우리문학의 건설, 둘째 세계문학의 상호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고 설파하는데, 이 잡지에서 8편의 번역소설과 50편의 번역시가 출판된 것은 상당한 성과이다. 특히 “일본의 중간적 단계를 거칠 것 없이”(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489) 직접 구미문학에 접촉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로서 당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역자들이 원작으로부터 직접 번역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번역 분위기를 조성하며 번역 전문인 양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은 큰 발전이라고 할 만하겠다.

『해외문학』외에 번역문학을 실은 당시 다른 잡지로 『폐허』, 『조선문학』, 『창조』등이 있는데, 1938년 최재서가 펴낸 『해외서정시집』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재서는 각 언어별 전공자들에게 작품을 나누어 번역하게 하였는데, 분담 번역의 방식으로 19세기 7개국 40명의 대표작 126편이 선정, 번역되었다. 영미권 시인으로는 블레이크(William Blake),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바이론, 셸리(Percy Bysshe Shelley), 키츠(John Keats), 테니슨(Alfred Tennyson), 브라우닝(Robert Browning), 로젯티(Christina Rossetti), 스윈번(Algernon Charles Swinburne), 예이츠(W.B. Yeats), 포(Edgar Allen Poe), 롱펠로(Henry Wadsworth Longfellow), 휘트먼(Walt Whitman) 등이 있다. 1939년 『박용길 전집』또한 문학번역서로서는 눈에 띄는 성과인데, 이 책에서 박용길은 자신의 창작시 74편을 포함하여 번역시 267편을 남기고 있다. 독일어, 영어에 능숙했던 박용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외국어인 두 언어에 의존하여 독일시와 영미시를 번역한 것도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다. 1939년 임학수가 펴낸 『현대영시선』은 동시대 시인들의 시를 번역한 점에서 돋보이는 책이다. 한자어로 가득한 역자 서문을 옮겨보면

古典은 自國人の 研究家에 衣하여 많은 註釋이 있음으로 便利하나 特히

www.kci.go.kr

이 後者(엘리올을 말함, 김병철 설명)는 實로 三十年代의 靑年詩人이어서 아직 外國에서는 翻譯되어있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그들의 詩句의 어떤 것은 마치 멘탈 테스트와 같다”(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792).⁸

당시의 번역은 대개 내용에 치중한 편이고 형식미를 살리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김병철은 지적한다. 이 밖에 자서전과 동화집의 번역 출판도 왕성하여 1935년에는 『특선 세계동화집』, 1936년에는 『세계동화집』도 출판되었다.

1936년부터 번역의 암흑기에 진입하게 된다. 당시 일본어 서적 출판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출판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때라 번역의 관점에서 이때부터 해방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암흑기에 해당된다. 당시 일제의 언론 탄압과 통제가 워낙 극심하였던 터라, 잡지 수 또한 급감하였고, 한글 말살정책으로 인해 번역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1930년대 조선인이 발행한 잡지수가 ‘228종’이었다가 이 시기에 ‘18종’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당시의 엄혹한 시대 현실을 읽을 수 있다(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800). 영미시 번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단 12편에 그치고 있으며 번역의 수준도 이전에 비하여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10년의 시기는 번역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친 심각한 퇴행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등 사상적 편향에 기울지 않는 순수문학이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 배경과 변화의 추이도 인상적이다.⁹

8.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많이 다른데 이 또한 당시의 관행을 따른 원본의 것을 그대로 살린 김병철 책의 철자와 맞춤법을 따랐다.

9. 「親日言論強要時代の 雜誌概觀」이라는 글에서 김근수는 다음과 같이 당시 열악한 시대의 상황과 싸운 작가들의 각고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다. “文學에 있어서도 社會主義의 作品이나 民族主義의 作品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日帝의 道具로 팔리는 것을 防禦 또는 救出을 爲한 純粹文學이 登場했고, 끝에 가서는 親日文學이 등장하여 판을 치게 되었던 것이었다”(재인용. 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801)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과 더불어 잡지가 짧은 시간에 124종으로 급증한 짧은 시기를 김병철은 번역문학의 재생기로 명명한다.¹⁰ 잡지를 통하여 민족 문화를 꽃피워보려는 시도 덕분에 잡지의 숫자가 늘어났고 종류 또한 종합지, 문학지, 여성지, 과학전문지, 교육지 등 대폭 늘어났는데, 다른 한편 해방 이후 사상적인 혼란이 극심했던 탓에 잡지의 개 폐간 등 부침이 심했다. 당시 복잡한 정국을 반영하듯, 미국과 소련, 양국의 문학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는데, 특히 1937년 이후 “流入의 길이 막혔던 서구의 모든 문학 현실을 알리는, 時事性이 큰 계몽적인 評論이 많이 번역 소개”된 것도 인상적이다(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825). 그동안 외국문학 번역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던 영국문학은 미국문학에 자리를 내주게 되고 시는 19세기 낭만시가 주로 번역된다. 1930년대에 보았던 전공자의 의욕적인 특집 번역은 드물었던 반면, 엘리엇(T. S. Eliot)의 『황무지』의 완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당시 영국소설이 15편, 미국소설 42편(그 중 22편이 저자 미상)이 번역되었고 영시는 27편, 미국시는 52편이 출판되었는데, 미국시에서는 특이하게 휘트먼(16편)과 흑인시(18편)가 큰 몫을 차지한다.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원시의 원칙을 착실하게 반영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번역의 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희곡, 평론, 수필 등 다른 형식의 글들도 활발히 번역되었는데, 특히 미국을 알리려는 시사성 있는 평론이 많았고 원자폭탄에 관한 기사나 소련을 알리는 글, 소련 문학도 다수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띈다.

1950년대 이후는 번역문학의 ‘르네상스적 시초’였다. 휴전, 수복 이후에 단행본보다는 전집, 문고의 형태로 번역 작품 출판이 급증하였는데, 동아출판사에서 최초로 세계문학전집이 출판되었다. 1958년 11월 1일 『사르트르 까뮈 편』을 시작으로 1960년 『20세기 시집』에 이르기까지 총 18권이 나왔다. 정음사 세계문학전집 총 50권(후에 100권으로 확대, 1권은 로

10. 이 시기는 동시에 “混亂과 無秩序의 氾濫”이기도 하다(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 824).

렌스[David Herbert Lawrence]의 『무지개』),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 60권(100권으로 연장, 1권은 어윈 쇼오[Irwin Shaw], 『젊은 사자들』)에 이어 헤세[Hermann Hesse], 루광, 엘리엇 등 개인 전집이 역간되기 시작한다. 특히 엘리엇 시 전집은 출판사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인이자 평론가, 국문학자이자 영문학자였던 양주동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게 주목할 만하다. 『T. S. 엘리엇 전집』이라는 제목으로 양주동은 엘리엇의 시 전편을 번역하고 주석을 붙였다. 당시 양주동이 주력한 또 다른 저서로 『세계문화독본(上·下)』(1964)이 있는데 문예 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소개를 통해 문화의 이접을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1953년 이전 전집 출간이 4종이었는데, 수복 후 전집류의 수가 23종으로 증가, 50년대에 전집류는 총 187권이 번역 출판되었다. 문고판 출판 또한 수복 후에 급격하게 늘어나 300권 가까이 출판되었다. 당시 외국어 실력보다는 우리말에 익숙한 기성작가들을 동원하여 『요약세계문학전집』으로 재번역하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에 가서야 외국문학 전공자들의 번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해방 2세대라 할 수 있는 당시 30세 전후의 학자들이었다.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일어를 먼저 배웠다는 점이 번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 해방 3, 4세대보다 번역에 있어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이들(정병조, 장왕록, 이종구, 이창배 등)은 6, 70년대까지 번역계를 주름잡으며 많은 역서를 남겼다.

번역문학사에 있어서 1960년대는 르네상스적 개화기가 도래하는 시기이다. 당시 제 3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반공, 독재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주의권 문학 번역은 대폭 줄어들고 서구 자유진영의 문학이 적극 소개되었다. 1950년대 25종이었던 전집류가 115종으로 증가하고 문고류는 17종이었던 것이 25종으로 증가하였다. 단행본보다는 호화 양장으로 된 전집과 문고가 외판의 방식으로 잘 팔렸기에 전집류 번역이 가파르게 성장한다. 당시 정음사와 미문출판사에서 1964년 거의 동시에 셰익스피어전집을 역간하게 된 것도 큰 성과이며 특이한 점이다. 일본문학과 중국문학

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가던 시기였고, 필벅(Pearl S. Buck),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카아네기(Andrew Carnegie),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등 개인선집 또는 전집 역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50년대에 비하여 영미소설 번역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미국소설(332편)이 영국소설(246편)보다 2배가량 많은 걸 보면 미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영미시 모두 19세기 작품들이 많은데, 소설에 비해서는 그 양이 적다. 희극은 영미희극 모두 활발히 번역되고 있으며 소극, 뮤지컬, 시나리오까지 번역되었다.

1970년대는 가히 번역문학의 절정기이다. 군사문화 아래 빛을 못 보던 동구권 문학 번역이 70년대 후반 들어 물꼬가 트여 80년대에는 더욱 활발해진다.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선집, 전집의 번역출판이 왕성해졌고 시 번역도 가파르게 증가한다. 60년대에 시선집, 전집류가 단 3종류였던 데 비해 70년대에는 15종류의 선집으로 번역 출판된다. 70년대를 번역문학의 절정이라 할 때 그 양적 팽창이 출판사의 편집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 판권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덕도 있다. 세계문학전집이 25종이나 번역되었는데, 모두 출판사만 달리할 뿐 선정된 작품은 거의 비슷하다. 영소설 번역은 60년대의 3배를 능가하고 있으며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경우 『暴風의 언덕』 한 작품이 무려 31종이나 번역되었다. 당시 시 번역도 급증하였는데 여전히 20세기에 비해 19세기가 강세를 보인다. 영국희극의 경우는 셰익스피어물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필문학과 전기의 번역 또한 급증하여 수필문학전집도 여러 종이 나왔다. 미국소설의 경우 60년대의 3배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였고,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필 벅과 헤밍웨이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이다.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들, 가령 필 벅, 헤밍웨이, 스타인벡(John Steinbeck), 벨로우(Saul Bellow), 포크너(William Faulkner)를 중심으로 번역이 많이 진행된 것은 요즘의 상황과 흡사하다. 미국시의 경우 여전히 19세기(휘트먼, 롱 펠로우)가 우세하고 20세기

시인으로는 프로스트[Robert Frost]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현대영미 회곡전집(10권) 번역도 1975년에 시작하여 1984년에 완간된다.

이 시절 세계문학전집 출판 붐이 일었던 것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다. 정치적으로 개발독재체제가 강고하게 구축되고 경제적으로 산업화와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6, 70년대에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기였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농과 도시민권이 양산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중산층과 소비문화가 형성되던 시기였으므로 바로 그 중산층의 교양을 충족시켜줄만한 ‘전집’의 수요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 60년대에 새롭게 한국사회의 주역이 된 4.19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일본어 교육을 받지 않은 한글세대여서 일본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기에 우리말로 옮겨진 새로운 세계문학전집이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시기의 전집은 기본적인 작품목록 구성을 일본판 세계문학전집에 의존했고, 번역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역본에서의 중역이 여전히 많았다.¹¹ 김병철은 특히 60년대 세계문학번역 시장이 번역의 온갖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던 시기였다고 일갈하는데, 역자 측의 일역 오역을 그대로 전사하는 경우도 있고, 매명 행위(번역은 하지 않고 돈을 조금 받고 역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많았으며 번역은 맡되 제자 등에게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번역을 맡긴 후 자신의 명의로 책을 내는 감수 행위, 표절 행위, 또 이전의 번역본 여기저기서 전사하여 뜯어 맞추는 모자이크식 번역도 횡행했다(김병철, 『한국 현대 번역 하』 230).¹² 번역인력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번역시장에서의 이런 혼란상은 지금이야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표절과 매명

11. 이 시기 번역문학의 화려한 융성 뒤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만만찮았는데, 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2. 60년대 번역시장의 문제라고 거론된 현상이 지금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원본을 다시 생산하는 번역 자체의 고유한 성격이 출판 현실과 결합하여 피해갈 수 없는 맹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사라지지 않은 지금 시절의 번역 현실과도 묘하게 겹쳐진다.

1980년대 이후는 세계문학전집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침체기에 해당된다. 방문판매조직을 통한 세트판매로 독자를 공략하면서 시장이 무한 확장되던 6,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는 가로쓰기 출판이 세로쓰기 책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세로쓰기 전집도 덩달아 밀려나게 된다. 출판의 중심도 전집보다는 단행본으로 이동하게 되며 '80년 5월' 이후 군부독재하의 억압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학 독서보다는 사회과학서적의 독서가 시대의 요구처럼 여겨졌기에 문학전집번역은 침체기를 겪는다. 하지만 그간 제1세계 서구문학에 편중돼 있던 '세계문학' 목록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제3세계 문학과 제2세계 사회주의권 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여 제3세계문학전집과 소련동구문학전집, 중국현대문학전집 등이 1980년대 말에 출간된다. 이어진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고, 전집류 시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1998년 오비디우스(Publius Naso Ovidius)의 『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는 제2차 세계문학전집 출판 르네상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문학번역 시장은 상승기에 접어든다. 2010년 6월 250권을 돌파하고 최근 320권을 돌파한 민음사 전집은 상업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전집 시리즈로 평가된다. 민음사 시리즈는 고전적인 작품들을 골고루 안배하면서 한국문학작품을 포함하여 노벨상 작가 등 동시대의 거장들을 다수 포함시킨다. 간행사에서 “『두시언해』가 단순한 번역문학이 아니고 당당한 우리의 문학 고전이듯이 우리말로 옮겨놓은 모든 번역문학은 사실상 우리 문학이다”고 선언한 바, 『삼국유사』와 『금오신화』, 그리고 『춘향전』과 『홍길동전』 같은 고전 외에도 이광수의 『무정』과 김승옥의 『무진기행』, 그리고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 등을 포함시킨 것이 이례적이다. 대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문학과지성사가 펴내는 대신세계문학총서는 2001년 로렌스 스톤(Laurence Sterne)의 소설 『트리스트럼 샌디』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122권을 출간하

였다. 대중적인 고전작품들의 목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음사 전집과는 달리 대산총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명작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공모를 통하여 번역가를 찾는 방식으로 특히 중복 번역을 가급적 배제하여 90% 가량이 국내 초역 작품인 것이 강점이다. 또 소설 중심이 아니라 시나 희곡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도 다른 전집들과 구별된다. 자상한 작품해설을 내세우는 웅진씽크빅 ‘펭귄클래식’ 시리즈는 영국 펭귄북스사와 합작하여 출범하였는데, 2008년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로 첫걸음 내딛은 이후 2010년 12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시학』으로 단기간에 100권을 돌파했다. 2008년 출범 이후 5년대 250권 출판을 목표로 한 웅진씽크빅 펭귄클래식은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진 『노에 12년』을 출판하였는데 작품 및 작가 선정, 편집 원칙, 디자인, 마케팅 전반에 이르기까지 펭귄북스사와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 세계 펭귄클래식 시리즈를 한글로 접하는 기쁨이 있다. 이밖에 열린책들과 을유문화사도 세계문학전집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목록과 새로운 번역으로 나름의 특색 있는 출판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이즈음 우리 출판계에서 다시 일고 있는 세계문학전집 출판 붐은 과거 6, 70년대 유럽 및 영미권 중심의 작품 선정 관행을 대폭 수정하여 각 출판사별로 개성 있는 색깔을 갖추는 데 주력함으로써 번역문학의 지평 확대나 번역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고전 작품을 중심으로 지나친 중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명한 고전 작품은 출판사별로 다 나오는 형편이다. 특성화되지 않은 전집 번역은 번역의 번역을 낳아 결국 번역의 윤리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작가별로 특성화하여 전집을 완역 출간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다. 번역의 형식에 대한 문제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중역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은 예도 우리문학사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¹³ 번역문학

13. 예를 들어 1921년 김억의 역시집 『오뇌의 무도』는 중역이었지만 우리 근대시 형성에 큰

과 자국문학의 영향 관계는 단순한 비교문학적 방식을 넘어서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연구영역으로 남아있다. 과거 정지용이나 김수영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 우리 소설가 및 시인이 외국문학을 직접 번역하는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작가가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충돌이 한 사람에서 일어날 때 작품 창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도 흥미로운 논제가 될 수 있겠으나 아직 연구 결과로 축적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외국문학 번역이 막 소개되기 시작한 1920년대 초반 번역이 주로 일본어 중역 혹은 축약된 초역이었던 사정을 생각해보면¹⁴ 우리 역사에서 번역은 처음부터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 겹의 언어와 여러 겹의 문화를 통과하고 도달한 어떤 것이었다. 우리문학 또한 그 여러 겹의 통과를 거쳐서 나온 어떤 것이었다고 한다면 문학 창작에 외국 문학 번역이 끼친 영향은 쉽게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령 한국시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로버트 브라우닝 및 예이츠와의 관계라든가, 블레이크 번역과 관련된 정지용과 김수영의 문제의식, 시적 방법론에 대한 비교가 흥미롭다.¹⁵ 휘트먼의 경우, 박헌영이 1920년 “Youth, Day, Old Age, and Night”를 번역 소개한 이후, 오천석, 김석송, 유무애, 이은상, 주요한, 이광수, 이병호 등이 번역 소개하였고 이후에도 이영걸, 이창배, 김기태 등 다양한 역자들에 의해 번역이 되었는데, 여전히 번역의 관점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¹⁶ 흥미로운 점은 번역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한국시의 형태가 이 시집에서 유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근대시에 많은 3행 혹은 4행의 연(聯) 형태가 이 시집에서 비롯되었으며 당대 시인들이 이 이역시집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이 적잖았다고 고백한다고 한다.

14. 유중호에 따르면 『낙동강』의 작가 조명회가 톨스토이의 희곡 『산송장』을 번역했고 「봉숭아」와 「고향의 봄」의 작곡가 홍난파는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의 『쿠오바디스』를 번역했는데 모두 중역이자 축약된 초역이었다.
15. 이에 대해선 김옥동과 서강목의 논의를 참조할 것.
16. 가령, 이광수의 경우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번역을 시도했던 터라, 최근 우리시 영어번역

이 전문 번역가의 손으로 이관되기 이전 시대에 외국문학 번역과 우리문학 사이의 교호가 더 활발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1927년 1월 17일 『해의문학』 창간호의 권두사는 “무릇 新文學의 建設은 外國文學 輸入 으로 그 記錄을 비롯한다. 우리가 外國文學을 연구하는 것은 決코 外國文學 研究 그것만이 目的이 아니오 첫재에 우리 文學의 건설, 둘째로 世界文學의 互相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재인용. 김옥동, 『번역과 한국』 336)라고 천명하는데 자국의 신문학 건설과 외국문학연구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물론 암울한 식민지 상황에서 이러한 의지가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긴밀하게 작용했던 번역과 자국문학의 관계가 6, 70년대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번역시장이 커지고 번역이 외국문학연구자와 전문화, 직업화된 번역가의 몫으로 이관된 까닭도 있겠지만 세계문학전집의 출판 방식이 우리문학과의 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 탓도 크다. 오히려 근대초기에 상상이 가능했던 세계문학 논의, 번역과 창작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6, 70년대 꽃핀 번역 융성기에 문학을 앞세운 상업주의적 전략 앞에서 위축되었던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Ⅲ. 번역의 윤리와 문화 편향성

위에서 살펴본 한국에서의 세계문학 번역사는 문학번역을 통한 문화변용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근대 초기에 ‘근대 따라잡기’로서의 번역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집 번역의 역사에서 번역의 융성과 문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지만 대개는 표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선에서 되풀이될 뿐이었다. 6, 70년대 번역문학의 화려한 융성 이면의 그림자,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적 성과에 대

에서 자의적인 창조로 이어지는 번역의 예와 비교해도 재미있을 듯싶다.

한 비판적 시각은 다음 신문 기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1964년 7월 30일자 한국일보 문화면에 실린 기사, ‘追越競争에 시달리는 셰익스피어－단숨에 全集 두 질의 慶事－’는 두 출판사가 이룬 쾌거를 “갑작스러운 先進”으로 보고, 그 뒀안길에서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는 출판계의 치부를 짚고 있다. 즉, 당시 출판계의 누적된 병폐중의 하나인 “졸속출판의 관행이 여기서도 반복되어 남의 나라 책을 거쳐 베껴내거나 심한 경우는 서너 출판사가 競속소동을 벌여 서로 망하는 예”로 전형적인 출판계의 문제적 관행이라는 판단이다. 또, 1964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은 당시의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졌던 분업화된 속전속결 번역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한다. “外國語를 조금 읽을 줄 아는 젊은이들이 여관에 舍宿을 하고 있었다. 잠잘 겨를도 없이 콘사이스를 뒤적이라, 글을 쓰랴, 그들은 밤낮으로 바빴다. 面會도 거의 謝絶－. 굉장한 試驗공부는 아니다. 이제 한 주일 만에 베스트셀러를 노린 超速翻譯版이 탄생하려는 것이다. 소위 날치기판이란 대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김병철이 밝히듯 특히 1960년대에는 번역의 온갖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던 시기로서 역자측의 일역 오역을 그대로 전사하는 경우도 있고, 매명 행위(번역은 하지 않고 돈을 조금 받고 역자 명의만 빌려주는 것)도 많았으며 번역은 말되 제자 등에게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번역을 맡긴 후 자신의 명의로 책을 내는 감수 행위, 표절 행위, 또 이전의 번역본 여기저기서 전사하여 뜯어 맞추는 모자이크식 번역도 횡행했다(『한국 현대 번역 상』 194). 번역인력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번역시장에서의 이런 혼란상은 지금이야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표절과 매명이 사라지지 않은 지금 시절의 번역 현실과도 묘하게 겹쳐진다.

다른 한편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는 번역의 “문화편향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의 번역출판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유네스코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트랜슬레이션넘〉(Index Translationum)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1년까지 전세계적에서 번역된 200만종 이상의 도서 중 출

발 텍스트가 영어인 도서가 117만 종으로 50%가 넘는다고 한다. 영어가 지역어가 아닌 지구어가 된 이 세기에 번역조차 필요 없이 유통되는 영어 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이 숫자는 더욱 놀랍다.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가 영어의 뒤를 잇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겨우 10만종이 넘는 수치이니 영어와의 격차가 엄청나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어가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덴마크어 등 모두 유럽 언어들이라고 한다(김성연 28). 이는 세계 번역 출판 시장에서 영어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착어 텍스트 순으로 10위권을 간추려 보더라도,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일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순으로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야 워낙 전통적으로 오랜 번역 출판 강국이다 보니 1, 2위를 다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인데, 독일의 예로 보자면 출발어 언어 1순위인 영어 텍스트가 2순위 프랑스어 텍스트보다 6배 이상 많다고 한다. 번역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번역물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진 우리나라에서도 출발 텍스트가 영어인 번역이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월등하게 높다. 반면 미국에서는 출판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번역물의 비중은 고작 2-4%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번역은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떠안고 가야 할 것이다. 앞서 번역 문학사를 통해 짚어본 번역의 현실에서도 출발어의 문화적 힘에 따라서 우리나라 번역시장에 편입된 양과 질이 결정되어 온 점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편향성은 극복되기 이전에 일단 인정되어야 하는 번역의 현실이겠다.

그렇다면 번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세계문학 읽기는 어떤 방식으로 자국 문화에 투입하는가? 역으로 번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다른 문화로의 전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 또한 번역 가능한 영역 내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정치적 문화적 편향성과 전략으로서의 번역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 문화편향성이 라는 번역에 본질적으로 개입되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볼 때 세계문화과 번역의 역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면할 과제는 체제이든 신화이든 결국 무엇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¹⁷ 세계문화론이 ‘세계의 문학’이 아니고 단순히 정전작품을 묶는 선집이 공통처럼 무한 거 대해지는 선택의 문제로 나아가지 않을 바에야(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 곳에서의 세계문화론은 세계문화 논의가 구축해 온 신화를 다시 질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겠다. 이는 다시 진정한 세계문화이 선취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새로운 비평적 틀의 확립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다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인가라는 세계문화 선집의 실제와 연결된다. 보편이든 특수이든, 주변부든 반주변부이든 기존의 고정된 틀로 세계문화를 그리려는 시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지점에 이른 것이 이론가들의 진단이지만 또 동시에 언어적 차원에서는 너무나 명백히 주변부/반주변부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상쇄하는가가 세계문화과 번역의 문제를 좀 더 현실로 끌어 내리는 방법이 되지 싶다. 미국의 영문과 혹은 영문학 비평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듯 세계문화 논의가 ‘비교문

17. 최근 무성해진 세계문화를 둘러싼 논의 또한 당면한 전지구적 경제체제, 지구화 과정 안에서 문학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 가능성의 영역까지 내포하고 있다면 지금의 세계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미래형을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닿아 있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당연히 기존의 신화를 재편하려는 긍정적 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병행되어야겠고 그 점에서 번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을 이어받은 모레띠(Franco Moretti)의 세계문화 재편 시도나 까자노바(Pascale Casanova)의 세계문화론 모두 신화로서의 세계문화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기준(예를 들어 그리니치 표준시)들은 서구중심주의라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비판하면서 소통의 문제로 세계문화를 정의하려는 데이빗 댄로스(David Damrosch)의 새로운 뜻 보이나 별로 새롭지 않은 논의 또한 소통에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번역, 언어 간 힘의 충돌의 문제와 시장의 개입 등을 간과해온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개진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서 문제의식만 밝혀둔다.

학'적 관점에서 그간 서구중심의 세계문학 신화를 무너뜨려줄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중심과 주변에 관하여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경계를 긋고 그 경계 너머를 보고자 하는 시도가 여전히 서구 중심주의 시선에 근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교문학적 방법론이 그동안 늘 직면해 온 문제점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번역을 앞세워 세계문학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진출할 방법을 찾는 방향은 보편성을 환기하여 주변부 문학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는 데는 이로울 수 있는 방식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심부로의 진입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¹⁸ 자국어로 머무는 작품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도 세계문학에 진입할 수 없다는 문학의 존재론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우리문학의 타 언어 번역 상황과 함께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질문이이지만, 타 언어권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국한해 보더라도 다양성과 특수성을 앞세우는 것 이상으로 어떤 고민이 선행해야 할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3세계문학론을 주창하는 경우에도 자칫 주변과 반주변의 역학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즉 뒤집어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문학전집 출판과 관련하여 되짚어보는 문화번역의 윤리와 정치성은 어쩌면 문학번역에서 강조되어온 충실성의 방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듯 싶다.¹⁹ 6, 70년대에 상업화를 내세워 자행되었던 번역의 무분별한 남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의 상업화를 내세우는 번역은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입을 최고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착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²⁰ 하

18. 최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과 이에 대한 번역, 출판계의 반응과 우리문학 수출을 위한 대응방식에 대해 한 역자는 "pathetic"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가 세계문학 시장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9. 이에 대한 좀 더 찬찬한 논의는 윤지관의 글을 참조할 것.

20. 신경숙 소설의 번역가 김지영 또한 "번역된 작품처럼 읽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읽힌다"는 이야기가 번역가인 자신에게는 최고의 찬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만 자연스러움이라는 최고의 가치는 거꾸로 낯선 문화의 ‘낯섦’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중심부와 주변부를 둘러싼 현실들을 문제적으로 예각화하기 위해서, 언어간 문화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번역은 어쩌면 낯섦을 그 자체로 낯설게 표현하는 것에서 다름과 차이에 대한 대화를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할런지도 모른다. 베누티(Lawrence Venuti)가 밝히듯, 출발 언어권에서 내포하는 “이질적인 텍스트의 이질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번역이 번역의 윤리성을 보장하면서 번역을 통한 문화적 연대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483). 도착문화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보다는 그 안에서 충돌하는 대상을 통해 문화 간 소통의 문제가 더 문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이라는 보편과 특수성의 대화 또한 번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낯섦을 적극적으로 껴안을 때 더욱 가능하겠다. 세계문학전집 번역에 개입되는 번역의 윤리와 정치성을 묻는 일은 그러므로 두 다른 언어가 투명하게 교환되리라는 번역의 기본적인 믿음이 허구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정치적, 문화적 편향성이 발생하는 장으로서 번역에 깃든 반역의 개념, 그러한 반역성을 품은 언어가 자국과 타국의 문화에 다시 창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되짚어 보는 일이기도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계문학번역의 공간은 다른 문화권이 만들어낸 텍스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번역을 토대로 하여 다른 문화를 자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변용하려는 의지와도 통하는 작업이 되겠다.

IV. 남은 질문들

2007년 영미문학연구회 번역 평가 사업단에서 시행한 해방 이후부터 2005년까지 발간된 영미 고전 완역본 조사에서 신뢰할만한 번역본은 10권에서 1권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10권에서 4권 가량은 번역 표절본으로 드러났다. 이즈음 세계문학 번역 시장을 이끄는 출판사들은 중역을 피하

고 전공자의 완역을 통하여 훨씬 향상된 수준의 번역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원저자 측과 정식계약을 통하여 번역을 하는 관행도 점차 자리를 잡아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계문학전집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반가운 현상이지만, 출판사별로 좀 더 개성 있는 번역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소설 중심에 치우친 번역 대신 시나 희곡, 수필 등 다른 장르로 번역의 외연이 넓혀져야 하겠고 또 서구 중심 번역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세계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세계문학번역이 우리 문학의 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미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세계문학 번역 시장이 커갈수록 지금까지 진행된 번역의 질과 관련한 논의보다는 세계문학과 우리문학 사이, 번역을 통한 ‘제 3의 장’에 대한 논의 또한 번역의 정치성과 문화 편향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가능한 연구로 남아있다. 앞서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번역문학사에서 역자들과 작가들이 꿈꾼 번역문학을 통하여 향상된 독자의 눈, 나아가 그 눈들이 우리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지도 또 다른 질문으로 남는다. 번역을 직접 하면서 자신의 문학 창작 방식을 변화시켜 간 60년대 김수영의 뒤를 이어 우리 문학에서 어떤 시인, 소설가가 번역과 창작의 창조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가, 외국문학의 이입이 우리문학에, 또 우리문학의 이입이 외국문학에 미친 영향을 묻는 것이 적극적인 문화변용의 장으로서 문학번역의 영역을 재검토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그 점에서 문학번역 특히 세계문학 번역은 문화번역의 창조성을 입증하는 실천적 영역이 될 수 있겠다. 번역이 버릴 수 없는 언어적 등가성과 차이,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윤리에 대한 질문, 번역의 내재적인 정치성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담지한 실천으로서의 번역은 매금 행위가 아닌 창조적 ‘번역’ 행위로서의 번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한다. 우리 근대 문화 형성기의 세계문학전집 번역 현상이 서구 근대를 적극적으로 따라잡기

하면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몽적인 목적에서 추동되었다면, 최근의 세계문학전집 번역은 다른 세계의 이질성과 좀 더 과감히 만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로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애초에 30년대 『해외문학』의 역자들이 내세웠던 문제의식, 즉 서구의 문학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세계를 새롭게 열어나갈 지혜를 얻는 과제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각으로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번역의 긴 역사를 훑어 근대를 급하게 통과해 온 우리에게 포괄적인 만병통치약적 개념으로서의 문화번역이 아니라 서로 상이한 두 문화의 구체적인 접점에 대한 고민이 동반된 번역의 장, 창조적인 문화변용의 장으로서 세계문학전집 번역에 대한 질문들은 어쩌면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Works Cited

- Apter, Emily. *The Translation Zone: A New Comparative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P, 2006. Print.
- Bassnett, Susan. *Comparative Literature: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3. Print.
- _____. *Translation Studies*. 3rd ed. London: Routledge, 2002. Print.
- Casanova, Pascale.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Boston: Harvard UP, 2005. Print.
- Damrosch, David.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P, 2003. Print.
- Jo, Seong-Eun [조성은]. *Munhakbeonyeokgwa Munhwabeonyeok [Literature Translation and Culture Translation,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Seoul [서울]: Dongin [동인], 2005. Print.
- Kim, Byung-Chul [김병철]. *Hanguk Geundae Beonyeok Munhaksa Yeongu [A Study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ranslation in Modern Korea,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Seoul [서울]: Elyumunhwa [을유문화사], 1975. Print.
- _____. *Hanguk Geundae Seoyangmunhak Ipsa Yeongu Sang [A Study in the History of Importation of Modern Western Literature in Korea I, 한국 근대 서양문학 이입사 연구 상,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 上]*. Seoul [서울]: Elyumunhwa [을유문화사], 1982. Print.
- _____. *Hanguk Geundae Seoyangmunhak Ipsa Yeongu Ha [A Study in the History of Importation of Modern Western Literature in Korea II, 한국 근대 서양문학 이입사 연구 하,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 下]*. Seoul [서울]: Elyumunhwa [을유문화사], 1982. Print.
- _____. *Hanguk Hyeondae Beonyeok Munhaksa Yeongu Sang [A Study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ranslation in Contemporary Korea I,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상,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 上]*. Seoul [서울]: Elyumunhwa [을유문화사], 1998. Print.
- _____. *Hanguk Hyeondae Beonyeok Munhaksa Yeongu Ha [A Study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ranslation in Contemporary Korea II,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하,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 下]*. Seoul [서울]: Elyumunhwa [을유문화사], 1998. Print.
- Kim, Hyun-Mi [김현미]. "Munhwabeonyeok: Geundaejeok Seongcharui Bipanjeok Jageop [Culture Translation: Critical Work of Modern
-

- Reflection, 문화번역: 근대적 성찰의 비판적 작업.” *Munhakgwa Gwahak* [Literature and Science, 문학과 과학] 27 (2001): 130-42. Print.
- Kim, Jae-Yong [김재용]. “Saeroun Segyemunhak Seonjibeul Wihayeo [For New World Literature Anthology, 새로운 세계문학 선집을 위하여].” *Jesambhoe Incheon AALA Munhak Forum: Jiyeogeseo Segyereul Chatda* [The 3rd Incheon Asia Africa Latin America Literature Forum: Finding the Global in the Local, 제3회 인천 AALA 문학포럼 자료집 - 지역에서 세계를 찾다]. (2012): 149-52. Print.
- Kim, Seon-Young [김선영]. “Beonyeogui Munhwapyeonyangseonggwa Beonyeokbipyongui Saeroun Mosaek [Cultural Partiality of Translation and the New Grasping for Translation Criticism, 번역의 문화편향성과 번역비평의 새로운 모색].” Diss. Seoul [서울: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Women’s Univ.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2011. Print.
- Kim, Uk-Dong [김옥동]. *Beonyeokgwa Hangugui Geundae* [Translation and the Modern Period of Korea, 번역과 한국의 근대]. Seoul [서울: Somyeongchulpan [소명출판], 2010. Print.
- _____. *Geundaeui Se Beonyeokga: Seojaepil, Choinamseon, Kimeok* [The Three Translators of the Modern Period: Jaepil Seo, Namseon Choi, Eok Kim, 근대의 세 번역가: 서재필, 최남선, 김억]. Seoul [서울: Somyeongchulpan [소명출판], 2010. Print.
- Lee, Myeong-Ho [이명호]. “Munhwabeonyeogui Jeongchiseong: Igukseongui Haebanggwa Iutdoegi [Political Nature of Culture Translation: Being in the Neighborhood with the Liberation of Exoticism,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이웃되기].” *Bipyonggwa Iron* [Criticism and Theory, 비평과 이론] 15. 1 (2010): 233-50. Print.
- Ricoeur, Paul. “New Ethos for Europe.”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21 (1995): 5-6. Print.
- Seo, Gang-Mok [서강목]. “Yeongmimunhak Suyongui Han Yangsanggwa Gwaje – Beulleikeuwa Hwiteumeoneul Jungsimeuro [An Aspect and Project of Acceptance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 On Blake and Whitman, 영미문학 수용의 한 양상과 과제 – 블레이크와 휘트먼을 중심으로].” *Inmungwahak* [Humanities, 인문과학] 29 (1999): 331-42. Print.
- Venuti, Lawrence, ed. “Translation, Community, Utopia.”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0. 482-502. Print.

- Woo, Seok-Gyun [우석균]. “Gugnae Segyemunhakjeonjibui Hyeonhwanggw
Munjejeom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World Literature
Anthology in Korea, 국내 세계문학 진집의 현황과 문제점.]” *Jesamhoe
Incheon AALA Munhak Forum: Jiyeogeseo Segyereul Chatda* [The 3rd
Incheon Asian African Latin America Literature Forum: Finding the
Global in the Local, 제3회 인천 AALA 문학포럼-지역에서 세계를 찾다.
(2012): 155-58. Print.
- Yeongmimunhakyehonghoe [Scholars for English Studies in Korea 영미문
학연구회]. *Yeongmimyeongjak, Joen Beonyeogeul Chajaseo* [British and
American Classics, Looking for Good Translations, 영미명작, 좋은 번역
을 찾아서]. Paju [파주]: Changbi [창비], 2005-07. Print.
- Yoon, Ji-Gwan [윤지관]. “Beonyeogui Jeongchihak: Oegugmunhak
Beonyeokgwa Geundaeseong [Politics of Translation: Translation of
Foreign Literature and Modernity, 번역의 정치학: 외국문학 번역과 근
대성.]” *Angwabak* [Inside and Outside, 안과밖] 10 (2001): 26-47. Print.

Abstract

Ethics and Politics of Translation: Translation History of World Literature in Korea as Cultural Translation

Eun-Gwi CH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essay tries to reflect the ethics and politics of translation and then invites readers to rethink the process of world literature translation here in Korea. Briefly tracing the studies of Kim Byungchul who wrote the translation history of world literature in Korea from 1895 to the early 1980s, this essay invites readers to remap the arena of literary translation as the space of cultural acculturation. In the process, this essay questions the notions of cultural translation not as a all-purpose tool but as the practice of contacting otherness and difference of cultures. What does the phenomenon of translating world literature here in Korea imply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modern Korea and its national identity? What are the roles and ethics of literary translation? How can translators get over the cultural partiality that is deeply colligated in the field of translation? With the various questions embedded in publishing collected works of world literature, this essay problematizes the politics of translation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rebuilding the cultural contact zone through literature translation where foreignness is cordially invited to the making of cultural identity. While the earlier translations of world literature focused on the acceptance of Western modernity, today's translation of world literature might be meaningful as the active site of transforming our culture and identity.

Keywords: collected works of world literature, cultural acculturation, cultural translation, cultural partiality, ethics, politics, translation

Eun-Gwi CHUNG is Associate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e specializes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poetry, modern Poetics,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She got her Ph. D. at Poetics Progra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in 2005. Her publications include articles, translations, poems, and reviews in various journals in *In/Outside: English Studies in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World Literature Today* (USA), and *Cordite* (Australia) as well as several book chapters on poetics.
echung@hufs.ac.kr

Received: 7 May 2014 Reviewed: 25 May 2014 Accepted: 1 June 2014
--